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Work Ability Index in Manufacturing Industries

(일부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능력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 간의 관련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 예 상 변 · 강 동 목 · 이 수 일

목적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추세인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현상,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최근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일상화되고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동 강도가 강화되면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조업체에서 종사하는 작업자의 노동능력과 직무스트레스 요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3곳의 제조업체에서 종사하는 작업자 705명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작업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노동능력

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각각 노동능력지수(Work Ability Index) 체크리스트와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의 표준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연령, 규칙적인 운동, 교대근무, 고용형태 등을 보정한 후 노동능력지수의 수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점수가 높은 군에서 노동능력지수가 낮은 군의 비차비는 직무요구(OR=1.63, 95% C.I.=1.17-2.25), 관계갈등(OR=1.91, 95% C.I.=1.35-2.70), 보상부적절(OR=3.02, 95% C.I.=1.74-5.24), 직장문화(OR=1.49, 95% C.I.=1.05-2.13), 스트레스 총점수(OR=1.53, 95% C.I.=1.12-2.09) 영역에서 유의한 비차비

를 보였고, 물리적 환경(OR=1.30, 95% C.I.=0.95-1.77), 직무자율성 결여(OR=1.33, 95% C.I.=0.96-1.85), 조직체계(OR=1.32, 95% C.I.=0.96-1.82) 영역에서는 경계적인 의미를 보였다. 직무불안정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론

일부 제조업체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은 노동능력지수와 관련이 있었다.

향후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능력과 관련된 여러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